한국의 인물

(6)
논 개(論 介)

MEDAL OF KOREAN HISTORICAL FIGURE

KOMSCO 한국조폐공사
Korea Minting &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한국의 인물

(6)
논 개(論 介)

MEDAL OF KOREAN HISTORICAL FIGURE

KOMSCO 한국조폐공사
Korea Minting &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표준영정 : 한국화가 석천 윤여환 작(2008)
소 장 처 : 국립진주박물관

논 개(論介 : 1574 선조7(?) ~ 1593 선조26년)

논개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21년(광해군 13)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논개는 진주의 관기(官妓)였으며 계사년에 왜적에게 진주성이 함락되자 논개는 촉석루 아래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순국했다" 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1625년(인조 3) 이후 진주의 선비 정대륭은 그가 순국한 바위에 「의암(義巖)」 이라는 글자를 새겼으며, 1722년(경종 2) 진주에서는 명암 정식(明菴 鄭式)이 지은 비문으로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 를 세웠다.

이후 정식은 당시 경상우병사 최진한에게 논개의 포상문제를 조정에 주청토록 하였으며, 이 결과 경종은 예조로 하여금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관기 논개를 의기(義妓) 논개로 호칭토록 하였다.

하지만 이 문헌에는 논개의 가계와 성장과정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기때문에 그녀에 대해 많은 억측과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1700년대 초에 진주 사람들이 논개의 순절을 포양토록 주청하였던 바, 조정에서 그녀의 가족을 찾아 포상하라는 윤허가 있었다. 그러나 경상우병영에서는 경상도 일대에서 조사하였으나 논개의 흔적을 찾을 길이없어 포상하지 못하였다.
그 뒤 꾸준히 논개의 행적 조사가 진행되어 1700년대 중반부터 권적의 〈경상우병사 증 좌찬성 최공의 시장〉〈호남절의록〉〈호남상강록〉〈호남읍지〉〈동감강목〉〈일휴당실기〉〈매천야록〉등의 문헌과 고노상전 200년의 구전설화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논개의 가계와 성장과정 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음은 이를 정리한 내용이다.

논개의 성은 주(朱)씨이며 관향은 신안(新安)이고, 의암(義巖)은 예문관에서 내려진 사호(賜號)이다. 논개는 1574년(선조 7) 9월 3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朱達文)과 어머니 밀양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논개 생가(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논개는 사주(四柱)가 공교롭게 4 마리 개를 상징하는 간지로, 4갑술(四甲戌 : 갑술년·갑술달·갑술일·갑술시)에 태어났다.

따라서 아버지는 딸에게 경상도 방언으로 "개를 낳았다"라는 뜻이 담긴 '논개(論介)'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거룩한 분노와 숭고한 죽음으로 국난을 극복한 의열여인(義烈女人)

논개의 숙부 주달무는 주색잡기와 행패를 일삼았는데 당시 지방의 토호 김풍헌(金風憲)을 찾아가 형 유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체하며 논개를 백치불구인 김풍헌 자식의 민며느리로 보낼 것을 계획하였다.

김풍헌은 길일을 택하여 혼례일을 정하고 박씨부인에게 전달하자 박씨부인과 소녀 논개는 혼비백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모녀는 우선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박씨부인의 친정인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봉정마을로 피신하였다.

한편 김풍헌은 시종을 논개의 생가 주촌마을에 보내어 소녀 논개를 데리러 갔으나 허탕치고 돌아오자 김풍헌은 대노하며 소장(訴狀)을 만들어 장수현감에게 제출하고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당시 현감 최경회(崔慶會)는 조사 후 김풍헌에게 무고(誣告)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엄명을 내리고 박씨부인과 소녀 논개를 무죄 방면하였다.

현감부인 나주김씨는 그 억울한 사정을 듣고서 의지할 곳도 없고 갈곳 없는 모녀를 병약하여 자리 보존중인 자신의 시중을 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고, 최 현감의 승낙으로 내아(內衙)에 머물며 병시중을 들게 되었다.

그러나 숙질(宿疾)로 고생하던 어머니 박씨부인이 사망하고, 또한, 논개의 정성어린 간호의 보람도 없이 현감부인 나주 김씨마저 세상을 떠났다.

1591년(선조 24년) 논개는 최 현감의 부실(副室)이 되는 운명이 되었다.
이듬해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최경회 현감은 소수의 관군을 이끌고 전라도 장수(長水), 진안(鎭安), 무주(茂朱)등지에서 약 500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무주를 거쳐 경상도로 출격, 가는 곳 마다 승전하였다.

의를 위해 목숨바친 조선여인의 기개

1593년(선조 26년 6월) 최경회 현감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임명되어 진주로 부임하면서 부인 논개와 함께 2차 진주성 전투에 참전했다. 성이 함락되고 패하자 최경회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하였다.

논개는 최경회의 명으로 성을 빠져나가 은신하면서 전황을 살폈으나 성은 함락되고 남편 최경회의 순국 소식을 접한 논개는 비장한 결심을 하였다.

7월 칠석날 왜적들이 촉석루(矗石樓)에서 승전연회를 베풀고자 기생들을 소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생으로 가장하여 왜군 연회석에 참석하여 왜장 게야무라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진주 남강(南江)변 현재의 의암(義巖)이라 불리는 바위로 유인하여 함께 투신 순국한 기생이 아닌 엄연한 양가집 규수이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살아남은 의병들이 현감 최경회와 부인 주논개의 시신을 거두어 신안주씨(新安朱氏)선조들이 묻혀 있는 주씨의 집성촌인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 당산 뒤쪽 능선에 묻었다고 한다.

이 묘소는 현재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다.

진주 촉석루(경남 진주시 본성동/ 경남문화재 제8호)

의암바위(정대륭이 바위에 새긴 '義巖' 문자)

한국의 인물
KOREAN HISTORICAL FIGURE

사적지 조성과 추모행사

1626년(인조 3) 이후 진주의 선비 정대륭은 논개가 순국한 바위에 「의암(義巖)」 이라는 글자를 새겼으며, 1722년(경종 2) 진주에서는 명암 정식(明菴 鄭式)이 지은 비문으로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세웠다.

1739년(영조 16) 경상우병사 남덕하는 왕의 윤허를 받아 진주에 「의기사(義妓祠)」를 창건하고 「의기논개지위(義妓論介之位)」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의암사적비」에는 비각을 건립하여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의 현판을 게시하였다.

1779년(정조 3) 경상우병사 홍화보는 「의기사」를 보수하였고, 1823년(순조 23) 진주목사 홍백순은 재건하였으며, 1868년(고종 5년) 진주목사 정현석은 이를 보수하고 「의암별제(義巖別祭)」를 지내도록 하였다. 현재 진주시 의기사에서는 매년 음력 6월 그믐 '논개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1846년(헌종 12) 당시 현감 정주석이 장수군 장수면 장수리에 논개가 자라난 고장임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비문을 짓고, 그의 아들이 글을 쓴 논개생향비(論介生鄕碑)를 건립하였다.

1956년 '논개사당(의암사:義巖祠)' 을 건립할 때 땅속에 묻혀있던 논개생향비를 의암사로 옮겨 놓았다. 비문에는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라고 씌어 있다. 장수군에서는 매년 음력 9월 3일 논개를 추모하기 위한 논개제전이 열리고 있다.

또한 논개의 출생지로 알려진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의 원래 생가지는 1986년 대곡저수지 축조로 수몰되었고, 논개 할아버지가 서당을 차렸던 곳으로 전해지는 바로 윗쪽을 생가지로 복원하여 장수군민들과 신안주씨(新安朱氏) 종친들이 매년 음력 9월 3일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 이 설명문의 연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와 인물' 자료에 근거하여 제작됨

의암사 (전북 장수군 : 전북 기념물 제4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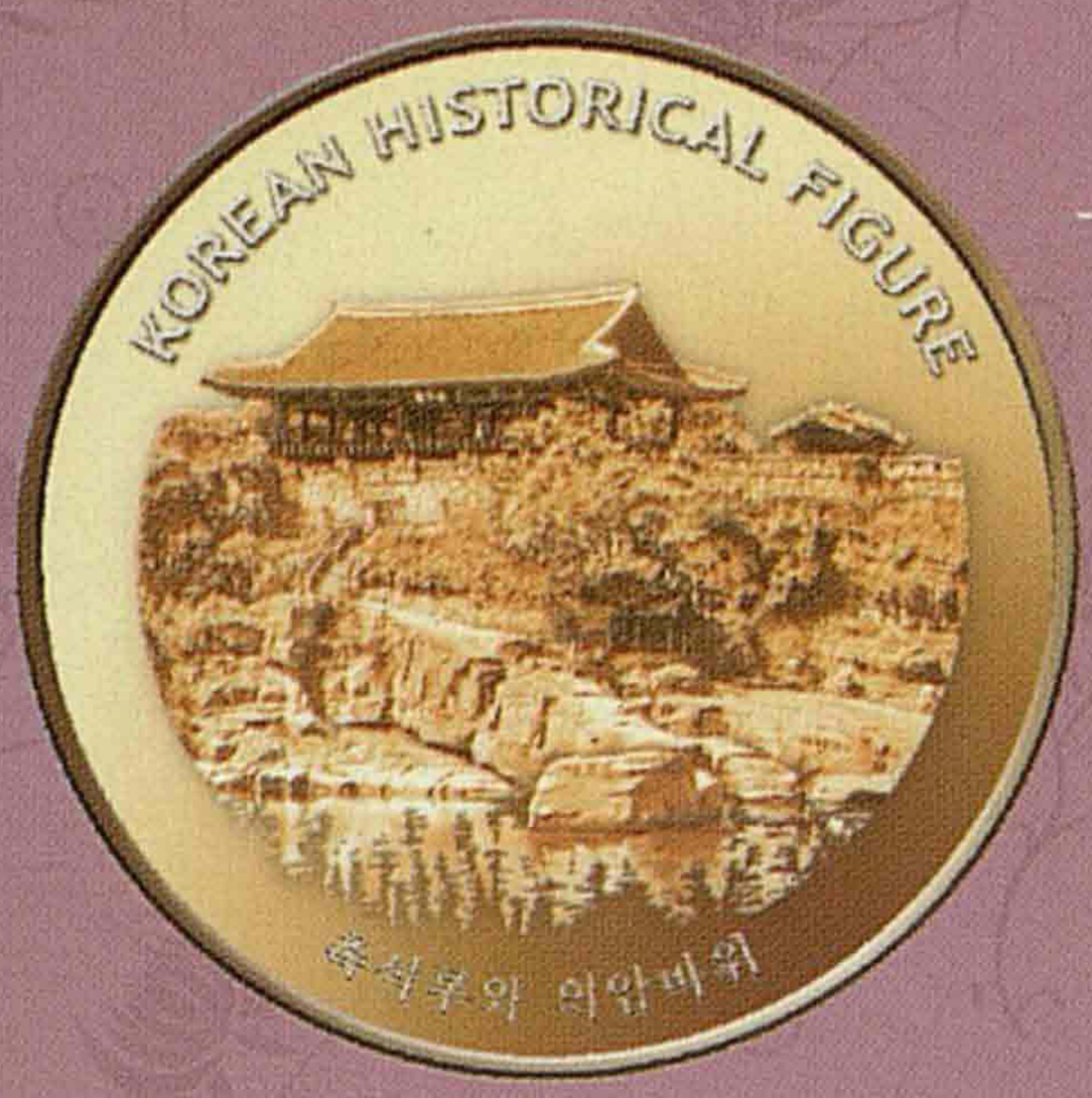
의기사(경남 진주시 : 경남 문화재 자료 제7호)

한국의 인물
KOREAN HISTORICAL FIGURE

디자인 설명

– 앞 면

'국립진주박물관'(경남 진주시 남성동 소재)에 소장된 의기 논개의 표준영정(한국화가 석천 윤여환 화백 작/2008)을 기초로 제작되었다.



– 뒷 면

의기 논개(義妓 論介)가 왜장 게야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껴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순절한 현장 '촉석루(矗石樓)와 '의암(義巖) 바위(경남 진주시 본성동 소재)를 주제로 제작되었다.

MEDAL SPECIFICATIONS	
직 경	40mm
중 량	33g(±1)
소 재	청동(Cu95 Sn4 Zn1)

· DIYUM ·
KOREAN CULTURE & VALUE
CREATED BY KOMSCO

디윰은 '쇠를 부어 만듦'의 의미를 가진 우리말 고어(명사형)로 한국조폐공사의 압인제품 브랜드입니다.
DITUM is a brand of medal and medallions made by KOMSCO and means casting in the old Korean word.

구입문의
마케팅본부 : 02) 710 – 5224
전자쇼핑몰 : www.diyum.com

한국의 인물
KOREAN HISTORICAL FIGURE

이 메달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역사 등의 분야에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선현의 표준영정' 및 '이달의 문화인물' 등에서 한국조폐공사가 메달의 적성을 고려하여 선정·제작하였습니다.

DIYUM
KOREAN CULTURE & VALUE CREATED BY KOMSCO

디윰은 '쇠를 부어 만듦'의 의미를 가진 우리말 고어(명사형)로 한국조폐공사의 압인제품 브랜드입니다.
DITUM is a brand of medal and medallions made by KOMSCO and means casting in the old Korean word.

구입문의
마케팅본부 : 02) 710 - 5224
전자쇼핑몰 : www.diyum.com